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36

이대로 환상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100 년을 내다보며 3 년 전에 지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축에 있어서 납득이 갈 때까지 상담했고 경도 높은 알파벳 r 형인 철근 콘크리트를 재료로 한 「영원」을 테마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도쿄⇔후쿠시마를 차로 왕복하고 있습니다. 네 곳이나 예배드릴 곳이 있었는데,,,, 다시 새로운 예배장소를 찾으러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400 에서 500 킬로를 당일치기로 부동산순방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겠지요.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며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해 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곳에서 새로운 예배장소를 찾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지금 곤란에 처해있습니다. 당초 생각하고 있었던 건물들은 모두 구할 수 없는 상태라서 맥이 빠지기도 하고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과연 다음 해 봄부터 예배드릴 장소를 찾을 수 있을는지요?

후쿠시마로 돌아오고 싶다는 교회성도님들의 주거를 위한 아파트 또한 더 더욱 곤란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매매물조차 거의 없고 또한 우연히 너무 놀라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제게는 첫 경험입니다만 「지진 피해자 거절」이라는 차가운 문전 박대를 당하거나 「후쿠시마에는 돌아오지 않는 편이 좋다」는 등의 묘한 어드바이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억울한 일은 원래 6만엔이었던 집세가 지진 피해자인 경우에는 9만엔이 된다면 제가 보는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집세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용서되어야하는 것인가?」고 나도 모르게 분하기도 하며 너무 슬퍼지는 마음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지진 재해 당시 다른 현으로 피난하면서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찾아간 어느 부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정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병원 안으로도 안내받지 못하고 계속 밖에서 서서 기다려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찾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사고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밖에서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어째서 이러한 괴로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요?

몸이 불편한 분이 병원 밖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던 광경을 떠올리면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요? 우리들의 고향도 우리들도 그렇게 더럽다는 것인지요?

후쿠시마에 원전이 세워진 날부터 후쿠시마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그대로 관동지구로 보내졌지 않은가고 한탄하고 싶은 마음을 누를길 없습니다.

원전에서 3 킬로 이내에 살고 있던 한 성도님은 당시 서둘러 다른 현으로 피해 그 현의 시청을 찾아갔더니 전입신고 처리는 해주지 않고 「물건을 원조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지진재해를 당한 우리들에게 인간의 존엄은 없는 것입니까? 원래 우리들은 거지가 아니며 세금을 납입해왔으며 직장에서 평범하게 생활해 오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인지요?

피난 중인 어느 한 집에 도둑이 들었으며 다른 현에서 차를 주차할 때에 후쿠시마 번호 차량은 이 지역에서 주차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정말 제 눈과 귀를 의심하고 싶은 사건 속에서 흠칫 흠칫하며 마음 줄여 생활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는지요?

지진 재해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가혹하고 잔혹하다고 지금 또 다시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신공동번역성경에서는 시편 119 편 71 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놀랍게도 멸시당하는 것마저 좋은 일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지금 출입 금지구역이 되어있는 제 집 옆에는 붓꽃원이 있었습니다. 계절이 되면 진흙 물에 힘차게 줄기와 뿌리를 내려 검은 물을 가득 빨아 올려서 예쁜 꽃을 피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혼돈한 대지에 힘차게 뿌리를 뻗어 황색이나 보라색의 여러가지 큰 꽃잎을 피웁시다.

이 결의가 제 풀에 쓰러지거나 도중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할 수록 더욱 강하고 능률해져서 저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

(빌립보서 4 장 13 절)

8 월 30 일 사토 아키라 (佐藤 彰)